

소득 낮은 전남, 농지연금 지급액도 최하

광주·전남 월 평균 지급액 60만3000원...9개 도 중 8번째 제주와 126만원 차이...전남 2148가구 가입 전국 12.9% 수준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전남지역은 농지연금 지급액도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광주·전남지역 평균 농지연금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6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 지급액은 제주가 186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는 지난 2017년(217만9000원)부터 4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에 이어 강원(141만5000원), 경기(136만3000원), 경남(125만원), 충남(113만4000원), 경북(93만원), 충북(91만8000원), 전남(60만3000원), 전북(54만8000원) 순으로 많았다.

평균 지급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도(道)가 5곳에 달했지만 전남지역은 올해 60만원 선을 겨우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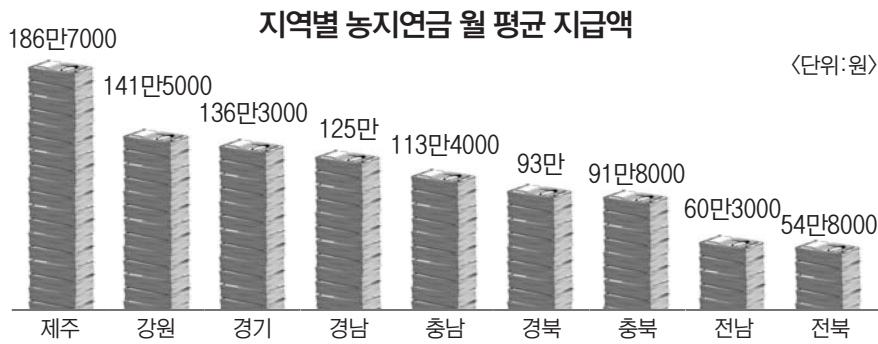
최근 10년 동안 전남지역 평균 지급액

은 54만3000원(2011년)→30만6000원(2012년)→36만3000원(2013년)→38만2000원(2014년)→44만4000원(2015년)→40만1000원(2016년)→36만8000원(2017년)→37만1000원(2018년)→55만5000원(2019년) 등 오르락내리락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전남 지급액은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전남 지급액은 최고 수준인 제주보다 126만4000원이 적다. 전국 평균 지급액(107만6000원)보다는 47만3000원 부족하다.

농지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농민 복지 대책의 하나이다.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향후 농지를 처분해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최저 지급액인 4만7000원을 받은 농민도 있다"며 "농지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지역별로 연금소득이 양극화되면 고령 농민들의 가계소득도 지역별로 고착화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농가는 전체 농가의 15.3%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 비중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농가 수는 15만4000가구로, 전국 농가(100만7000가구)의 15.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2020년 8월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체(1만6654건)의 12.9% 가량인 2148가구였다. 올해 들어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가입 실적은 212건

(전체 2162건)이었다. 농가 수는 전남과 경북, 경남, 충남 등이 더 많은데도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 가입실적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주택연금은 올해 4월 가입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까지 하향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0.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2016년 이자율 2% 조정(고정금리 기준)에 이어 한 단계 더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북광주농협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고령 농업인 등 150명은 무료 의료 검진과 장수사진 촬영 등을 지원 받았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지보전부담금 조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조회 등을 농지공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신청인의 농지전용내역과 필지정보 조회, 부과 내역 조회 및 카드결제,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등이다.

기존에는 이들 서비스가 지로와 팩스 전송으로 이뤄졌다. 지로 고지서 수령과 납입확인서 팩스 발급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지목 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관리'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농어촌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농어촌알리미'(alimi.or.kr) 사이트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확정된 납입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특별방역



김석기(왼쪽 세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지난 16일 곡성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생석회 2000포 양돈농가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세우고 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과 지난 16일 박왕규

곡성축협 조합장, 이승주 농협 곡성군지부장 등은 지난 16일 곡성군 겸면 마전리 양돈농가를 찾아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농협 측은 양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와 가축 질병 방역자랑을 동원해 농장 주변에 소독약을 살포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근 생석회 2000포를 양돈농가에 긴급 지원했다.

김 본부장은 "축산농가는 농장을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금지 등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 전남 생산 쌀 30만~34만t 매입 계획

농협 전남본부 40% 수준 매입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전남 쌀 생산량(72만~80만t)의 40% 수준인 30만~34만t을 매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합읍 지역본부에서 '2020년 쌀 수확기 업무협의회'를 열고 농가 희망물량 전량 구매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전남RPC협의회(협의회장 양용호·금성농협 조합장)와 광주·전남지역 벼 매입농협 조합장 50여명, 최선식 농협경제제주 양곡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본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을 72만~80만t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은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363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3.0%(11만3000t)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6432ha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했지만 전남은 지난해 15만4000ha에서 올해 15만6000ha로 1.4% 증가했다. 전남 예상 생산량은 0.2%(1500t) 증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지역 생산 쌀의 40% 안팎을 매입해왔다.

전남농협 매입물량(수확기 8~12월 기준)은 ▲2015년 35만6000t(점유비 41.1%) ▲2016년 36만3000t(42.9%) ▲2017년 30만4000t(36.8%) ▲2018년 31만1000t(40.6%) ▲2019년 29만7000t(40.9%)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용 정부 매입물량은 ▲2016년 13만9000t(점유비 16.1%) ▲2017년 16만4000t(19.4%) ▲2018년 19만8000t(23.9%) ▲2019년 8만9000t(11.6%) ▲2019년 8만9000t(12.3%) 등 들락날락거렸다.

농협은 민간RPC와 달리 매년 수확기에 농가벼 대부분을 구매한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 출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할 계획을 밝혔다.

전남본부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협의회에서 올해 긴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세 차례의 태풍을 겪으며 쌀 생산량과 쌀값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격결정 때 사후정산제를 활용하고 농협간 벼 거래를 확대하자고 협의했다.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만큼 농가에서 수매요청 전량을 구매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